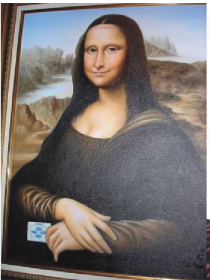


# 태국의 양배추와 콘돔 레스토랑

지난해 국립경상대학교 정치행정학부 소속 대학생 4명은 경상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파이오니어 프로그램(GPP:Global Pioneer Program)의 일환으로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에이즈 퇴치에 성공적인 국가 '태국'을 방문하여 그 성공요인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을 겨루는 보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. 학생들의 보고서 중 콘돔레스토랑으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태국의 양배추와 콘돔레스토랑에 대한 방문기를 재미나게 이야기하고 있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.

글 양배추 원정대(이대완 박상호 이유미) 경상대학교 성지인교과과

▼ 콘돔을 들고있는 모나리자



▼ 양배추와 콘돔 기념품 가게의 기념티셔츠



- 방문 일자: 8월 26 토요일 오후 15:00
- 방문 장소: 태국 방콕 수쿰윗 12번가 양배추와 콘돔 레스토랑

답방 마지막 날 우리는 팀빙의 마지막 종착지를 양배추와 콘돔 방문으로 정했다. 우리팀은 '양배추 원정대'라고 이름 짓게 된 것도 이 식당에서 따온 것이었다. 에이즈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콘돔 사용을 양배추 먹듯 쉽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름 붙여진 양배추와 콘돔 식당은 태국 내에서 '콘돔사용 문화(Condom Culture)'를 획기적으로 확산시켰다. 이를 추진했던 사람이 전 국회의원 출신 메차이 비라바다(Mechai Viravadya)씨이고 태국에서는 일명 'Mr. 콘돔'이라고 불리고 있었다.

우린 이 유명한 'Mr. 콘돔'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몇 번이나 약속을 연락을 취했지만 결국 직접 통화를 못한 상황이었다. 우린 결국 태국에서 와서 부작정 찾아가기로 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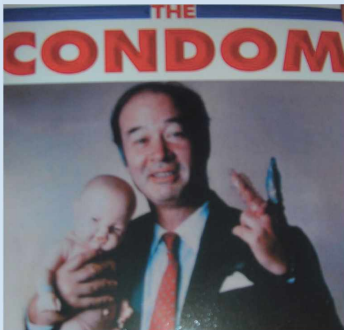
우리가 머물고 있던 게스트 하우스에서 '양배추와 콘돔' 식당까지는 택시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위



▲ 콘돔꽃



▲ 콘돔으로 만든 하트



▲ '콘돔문화'를 정착시킨 메차이 비라바다 씨



▲ 콘돔식탁보

치하고 있었다. 식당 이름만 말해도 테러나 줄 만큼 태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 
진 식당이었다.

도시의 한 골목에 위치한 식당은 담쟁이 넝쿨로 입구가 장식되어 있어 마치 비탈  
의 화원으로 들어가는 듯한 신비감을 주었다.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기념품 가게가  
우리를 반겨주었다. 그곳을 들어서면 순간 너무나 화려하고, 어떻게 보면 민망할 정  
도로 많은 콘돔으로 만든 조형물과 콘돔을 디자인화하여 색인 컵과 티셔츠, 넥타이,  
그리고 엽서가 진열되어 있었다. 그 기념품을 사고 싶다는 바우바다는 어떻게 이런  
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? 라는 생각과 상품화되어 나온 것들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 
어떤 생각을 할지가 부쩍 궁금했다.

기념이 널 만한 컵과 엽서를 몇 장 사고 나와서 식당으로 들어가자 식당 안 또한  
가시각색의 콘돔으로 장식되어 있었다. 가장 놀란 것은 식사를 하는 테이블 위에도  
색깔을 달리한 콘돔들이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약간의 거부 반응이 생겼던 것이  
사실이다. 식사를 하는 동안 매니저에게 이런 테이블을 본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하  
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이색해하던 손님들도 음식을 먹는 동안 즐기워한다고 대답  
해주었다.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양매추와 콘돔 식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콘돔 사용  
의 거부감 완화의 메커니즘을 느낄 수 있었다.

처음에 만나고자 했던 'Mr. 콘돔'과는 일종의 문제점으로 인해 만나지는 못했지만  
직속 매니저를 통해 그가 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높은 인지도를 가  
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. 그가 운영 중인 이 식당이 태국내의 체인점에만  
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체인점을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  
을 때 직접 만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더욱 컸다.

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는 뒤 계산을 끝내고 식당을 나서려는 순간 한국의 식당에  
서 겪을 나누어주듯이 콘돔을 나누어주려고 하는 종업원의 손길에서, 입구에 들이  
실 때의 신비교육과 기념품 가게에서의 놀이음,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민간차원에서  
함께 노력하여 학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것에 대한 존경심까지 한꺼번에 느낄  
수 있었다.

식당을 나서면서 '한국에도 이런 식당이 있다면?' 하는 생각을 했을 때, 웃음이  
나왔다. 식당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의 반응과 언론에 소개될 기사들이 머릿속에 퍼  
올랐기 때문이다.

이 식당의 파격적인 인테리어와 운영방식이 태국 콘돔 사용 정책에 끼쳤을 긍정  
적인 영향을 생각하니 한국에서의 숨기고 은폐하려 하는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지  
점 부딪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  
졌다.